

# 해방기에서 한국전쟁기까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전개\*

김병길\*\*

1. 서론
2. 연재작 현황과 서지 사항
3. 변화의 안과 밖
4. 전통의 욕망
5. 남은 과제

## 국문요약

이 글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약칭 ‘해방한전기’)까지의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전개 양상에 관한 논의이다. 이 시기 역사소설 문학에는 전대의 유산과 해당 시대의 굴곡에서 파생된 국면이 공존하거나, 이를 실증하는 데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시기 발표작들의 현황과 연재 실태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연재소설로서의 양식적 특성과 담화적 특질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전대 문학과와의 연속성 검증이 그와 같은 토대 위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역사소설 전통의 변주 궤적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역사소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주요작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된 주제의식, 작가들의 역사관에 대한 고찰 등을 핵심 논점으로

---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연구 대상 선정과 시기 설정의 임의성이 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해방한전기 신문연재 역사소설 문학의 전개 양상을 입체적으로 부감하기 위해 시기 설정과 매체를 편의적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설정의 한계를 확인한 것이 역설적으로 이 글의 최대 연구 성과이며, 따라서 그 결과가 향후 연구의 시발점이자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해방, 한국전쟁기, 민족주의, 연재소설, 역사소설)

## 1. 서론

1920년대 중반 발아된 이래 역사소설은 해방 직전까지 신문연재소설의 간판 격이었다. 그 같은 사정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이하 ‘해방한전기’로 지칭)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거니와, 해방과 함께 창간된 많은 민간신문의 출현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킨 계기였다. 정치적 격동기였던 만큼 해방기의 신문들은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강하게 표방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이 온전히 정치기사 일색으로 채워질 수는 없는 터, 신문사들은 전대 신문연재소설이 누린 영화를 이어가고자 했다. 특히 대중성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들일수록 독자 견인의 차원에서 연재소설을 중용했다. 그 가운데서도 역사소설은 전대에 그러했듯이 연재소설란의 기린아였다. 무엇보다도 민족국가건설이라는 당면한 과제 앞에서 민족서사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좌우 이데올로기 간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남북 두 개의 국가 형태로 수렴되고, 그 전고점이라 할 한국전쟁에 이르면서 민족서사의 대체물로서 역사소설

에 대한 대중의 소비욕구는 크게 자극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에 영향 받은 독자의 기대지평 및 확대된 수요와 같은 외적인 변화 외에 역사소설계 내부에서도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채 10여년이 안 되는 기간에 신문이 아닌 잡지에 적지 않은 수의 장편 역사소설이 연재된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수의 단편 역사소설이 잡지를 통해 주로 발표된 점과 소수이긴 하나 단편 역사소설이 연재소설로 당당히 신문에 이름을 올린 것도 해방한전기 역사소설계의 일신된 면모였다.

이렇듯 해방한전기 역사소설 문학에는 전대의 유산과 시대적 굴곡에서 파생된 국면이 공존한다. 역사소설사에 있어 해방한전기가 지니는 개별성이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이를 실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시기 발표작들의 현황과 연재 실태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서지상의 오류들을 바로잡고자 한다.<sup>1)</sup> 이를 토대로 연재소설로서의 양식적 특성과 담화적 특질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전대 문학과와의 연속성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역사소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주요작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된 주제의식, 작가들의 역사관에 대한 고찰 등은 이 시기 역사소설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 유효한 논점이 될 것이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이 글의 논의 대상이 신문연재 역사소설로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역사소설의 본령이 신문이기도 하려니와, 전대와의 분절적 국면을 조감하는 데 있어 동일 매체로 그 변수를 제한하는 것이 보다

1) 이 시기 해당 역사소설 텍스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서지적 오류가 적지 않다. 특히 게재지 및 게재 시기와 관련하여 최초 연구를 후속 연구들이 확인 과정 없이 추수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는 최초 발표지면인 신문 원본이 아닌 단행본내지는 전집 판본을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삼은 결과도 하거니와, 분명 반성될 필요가 있는 연구 관행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서지 오류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바로 잡은 서지 사항을 근거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시기 잡지에 연재된 작품의 수가 소소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일 수밖에 없다.

## 2. 연재작 현황과 서지 사항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해방한전기 장편 역사소설 가운데 맨 앞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은 박종화의 『民族』이다. 『중앙신문』에 1945년 11월 5일자에서 다음 해 7월 22일까지 근 9개월 넘게 연재된 이 작품은 사전에 기획된 두 개의 연재작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신문사가 “해방과독립을 기념하는二代장편소설을 재연 키로하고 근대소설(近代小說)을 월탄 박종화씨(月灘朴鍾和) 현대소설(現代小說)은 상허이태준(尙虛李泰俊) 씨두분에게 청탁하였든바 우연히도 두분의 소설제목이『민족』(民族)으로 일치되었”<sup>2)</sup>기에 박종화의 근대편을 우선 연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태준이 신문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民族』의 현대편은 연재되지 못했다.

『民族』에 이어 연재된 두 번째 장편 역사소설 역시 박종화 작의 『洪景來』였다. 이 작품은 『동아일보』에 1948년 10월 1일자에서 다음 해 8월 24일자까지 총 273회가 연재되었다. 연재 기점을 기준할 때 『洪景來』다음에 오는 작품이 김동인 작의 『乙支文德』이다. 이 작품의 서지는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그 연재 지면이 불분명하다. 『金東仁全集』(조선일보사, 1987)은 이 작품이 『태양신문』에 1948년 10

2) 『新文學創造의標塔 民族 本紙가자랑하는二大連載小說의公同題目』, 『중앙신문』, 1945. 11. 1.

부터 1949년 7월 14일까지 연재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기존 김동인 문학 관련 연구들 역시 이 서지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신문』은 1949년 2월 25일 창간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전집과 기존 연구의 서지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태양신문』에 이 작품이 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재지 및 게재 시기와 관련한 서지 정보가 모두 오류인 셈이다. 김동인이 이 작품의 집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게 되어 두루뭉술하게 마감하게 되었다는 유족의 증언<sup>3)</sup>과 전집 수록 텍스트에 “一九四九년 六月”로 밝혀져 있는 최종 집필 시점<sup>4)</sup> 등에 근거할 때, 1949년을 전후하여 창작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해 보인다.

『서울신문』의 첫 번째 역사소설은 박태원의 『壬辰倭亂』이었다. 이 작품은 194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총 273회가 연재되었다. 『서울신문』의 전신으로 해방 직전 유일한 한글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마지막 연재소설이 박태원의 역사소설 『元寇』였던 사실을 떠올릴 때 『壬辰倭亂』의 연재는 단지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신문사는 연재광고를 통해 작자 박태원이 “해방이래 재료수집만으로도 四년의 긴 세월이 걸렸고, 구상역시 수년간의 오래인 시간을 닦아 왔읍니다”<sup>5)</sup>라고 소개함으로써 이 작품이 기획된 창작임을 알리고 있다. 실제로 박태원은 이 작품의 연재에 앞서 역사전기물 『李忠武公行錄』(을유문고, 1948)과 역사소설 『李舜臣將軍』(을유문화사, 1948)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번역 및 창작의 글쓰기를 시도한 바 있다. 이렇듯 충분한 준비와 예행의 과정을 거쳐 일 년여 동안 연재한

3) 김광명, 「나의 아버지 김동인을 말한다」, 『대산문화』 35호, 2010, 73쪽.

4) 김동인, 『東仁全集』 第六卷, 正陽社, 1951, 510쪽.

5) 『新春부터本紙連載 長篇小説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8. 12. 25.

이 작품을 일각에서는 미완으로 평한다. 그 근거는 최종회에 첨부된 다 음과 같은 『작자의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임진왜란은 아직도입니다. 이것을 완성하려면 앞으로도 이년이 걸릴지 삼년이 걸릴지 아직은 작자로서도 딱 잘라 말할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잠깐 끊고 자료를 정리하고 생각을 가다듬어 기회있는대로 다시 속편을 쓰려합니다. 오랜 동안의 애독을 사려합니다.<sup>6)</sup>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2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전쟁의 실상과 전말이 서술되어 있다. 완결된 텍스트로 보기에 충분한 연대기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박태원이 쓰고자 하는 『壬辰倭亂』의 속편은 전연 새로운 서사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작자 박태원 역시 속편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시기상 박태원의 『壬辰倭亂』의 뒤를 잇는 신문연재 역사소설이 윤백남의 『回天記』이다. 이 작품은 『자유신문』에 1949년 4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23일까지 연재되었다. 『자유신문』에 연재된 최초의 역사소설이자 유일한 역사소설이다. 식민시기 대표적인 대중적 역사소설가로 문명을 날렸던 윤백남이 해방 후 발표한 첫 번째 역사소설이기도 하다. 신문사는 본격적인 연재에 앞서 “우리문단의 원로로 역사적대중소설계의 제 1인자인 백남윤교중(白南尹敎重)씨의의뢰하여 回天記라는 근대조선혁명의 선구이든 東學黨사건을배경으로하고 全奉準의활동을 주제로한대 소설을 새로히연재하기로되었습니다”<sup>7)</sup>라는 소개의 말을 통해 이 작품을 광고했다. ‘전봉준’이라는 역사적 인물 중심의 이야기 전개를 예고한

6) 박태원,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9. 12. 13.

7) 『四月十日附부터 新連載小説 回天記』, 『자유신문』, 1949. 4. 2.

것이다.

한편 『서울신문』에 『壬辰倭亂』의 연재가 한참이던 때, 박태원은 또 하나의 장편 역사소설을 다른 지면에 연재하기 시작한다. 『群像』이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소설가로 특히 역사소설가로 이름 높은 구보 박태원(丘甫 朴泰遠)씨의 장편『군상』(群像)을 실리게 되었습니다.”<sup>8)</sup>라고 이 작품의 연재를 알린다. 이 광고에서 박태원은 그 시대적 배경이 한말(韓末)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1949년 6월 15일부터 1950년 2월 2일까지 총 193회에 걸쳐 연재된 이 작품은 『壬辰倭亂』과 연재시기가 거의 겹친다. 앞서 『壬辰倭亂』의 연재를 마치며 밝힌 속편 연기의 속사정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작품 역시 『壬辰倭亂』과 유사한 이유에서 미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태원(朴泰遠)씨의 저작『군상』(群像)은 금일로서 상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무론 후편이 연하여 게재되어야 할 바이오나 작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선 이것으로 끝을 막고 속편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sup>9)</sup>라는 이 작품의 후속 연재작 광고 내용이 그 한 근거이다. 이때 작자의 사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로 박태원이 속편을 구상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후 월북의 행적을 감안한다면 속편의 연재는 완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시대적 배경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그가 월북 후에 쓴 『계명산전은 밝아오느냐』와 『갑오농민전쟁』 연작이 바로 『群像』에서 발아되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群像』 연재 당시 박태원이 그 속편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작품은 박태원이 후반생 내내 구상하고 창작한 대작 『갑오농민전쟁』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곧 『群像』을 미완작으로 판단할 수 있는

8) 『이달中旬부터連載 長篇歷史小說 群像』, 『조선일보』, 1949. 6. 6.

9) 『長篇小說 暖流』, 『조선일보』, 1950. 2. 2.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群像』만 하더라도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폭으로 보아 1850년대 철종 연간 세도정치하의 지배층과 민중의 삶에 드러난 암흑을 포괄적으로 드러낼 만한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따라서 『群像』에서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갑오농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대물 연작을 상중하 편의 개념으로 엮기보다는 각 작품의 개별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계보적 연관성에 주목하는 편이 타당한 이해일 성싶다.

『국도신문』에도 한편의 역사소설이 연재되었다. 『醉香亭』이 그것이다. 1949년 9월 8일자 예고광고에서 편집자는 『紹介의말』을 통해 “본사에서발간이후 첫시험으로 홍목춘(洪木春)씨의 역사소설 『취향정(醉香亭)』을 연재하게되었습니다.”<sup>11)</sup>라는 말과 함께 “대원군(大院君)과 명성황후(明成皇后)를중심으로 가지가지의 파란곡절을 그리어, 다사하고 다난하던 그시대의 한폭그림을 보여드리게되었습니다.”라며 그 개략적인 내용을 전한다. 연재 기간은 1949년 9월 15일부터 1950년 2월 7일까지이며 연재 분량은 총107회였다. 해당 신문에 연재된 유일한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완성된 텍스트로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근거는 이 작품의 후속 연재작 예고광고 내용 중 “홍목춘(洪木春)씨의 역사소설 취향정(醉香亭)은 작자의 사정으로 지금까지를 상편으로 하여일단 끝을막고 김영수(金永壽)씨의 현대소설 『계절풍』(季節風)을三月一일부터 연재하게되어습니다.”<sup>12)</sup>라는 일종의 사고(社告)에서 발견된다. 말하자면 전체 서사 가운데 전반부만으로 연재가 종료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어느 정도 그 자체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상태에서 후속편

10) 이상경, 『역사소설가로서 박태원의 문학사적 위치』, 『역사비평』 29호, 역사문제연구소, 1995, 235쪽.

11) 『歷史小說 醉香亭』, 『국도신문』, 1949. 9. 8.

12) 『다음連載小說 季節風』, 『국도신문』, 1950. 2. 24.



연재를 기약했던 박태원의 『壬辰倭亂』이나 『群像』과는 다른 문맥이다.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서술 방식에서도 드러나거니와, 『醉香亭』은 딱히 서사적 구성이라 할 만한 소설미학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연재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를 미완으로 판정할 근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속편은 연재되지도 씌어지지도 않았다.

이 시기 윤백남의 두 번째 역사소설은 『동아일보』에 연재된 『颱風』이었다. 이 작품은 연재 개시 하루 전 “待望의歷史小說 颱風 明日부터連載”라는 문구로 광고되었으며, 1950년 2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130회 분이 연재되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중단되었다. “한말 반세기를 두고 몇々 위인들이 개국유신에 발분노력하여 우리의 만대불멸의 국초를 다시 놓고자 피를 흘리던 선인의 행적”을 그림으로써 “한개의 외사(外史)적 역할을 하고자하는 분에 넘치는 의욕”<sup>13)</sup>을 작자는 연재에 앞서 피력했다. 그러나 김동인의 『乙支文德』과 함께 이 시기 연재 중단된 또 하나의 작품으로 남고 말았다. 『乙支文德』이 작자의 급작스런 병으로 인한 내부적 요인이었던 데 반해 『颱風』의 연재 중단은 외부적 요인 탓이었다.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 때문이었던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충격이 누그러지면서 신문이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으나 『颱風』의 연재는 재개되지 못했다. 윤백남은 다른 작품을 연재함으로써 결국 『颱風』을 미완으로 남겨 두었다.

윤백남이 차기작으로 선택한 역사소설은 『野花』였다. 연재 지면은 『颱風』과 동일하게 『동아일보』였으며, 1952년 8월 15일부터 1953년 2월 15일까지 만 6개월 동안에 걸쳐 총 183회 연재되었다. “역사소설 『야화』의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머리속에 얹혀져있어서 미상불집필의 기회

13) 『다음의連載小說 颱風』, 『동아일보』, 1950. 1. 21.

를고대했던것입니다”<sup>14)</sup>라는 연재 광고 『作者의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씌어진 작품이나 진배없는 상태에서 연재가 개시된 것이었다. 윤백남은 1937년 5월 만주 화북(華北)지방으로 이민을 떠나거니와, ‘在滿朝鮮農民文化向上協會 常務理事’로 재직하는 가운데 교민계몽에 주력하였다. 역사소설 『野花』의 구상은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연재 예고작 『野花』을 오래 전부터 구상해왔다는 윤백남의 언급이 상투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이 작품을 각색한 역사극 『野花』가 소설 연재가 종료되는 시점과 같은 달인 1953년 2월 대구국립극장 개관 기념으로 공연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는 『野花』를 온전히 한국전쟁기에 창작된 역사소설로 볼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윤백남은 『野花』 연재 종료에 즈음하여 『조선일보』에 『落照의 노래』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1953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총 146회가 연재된 이 작품은 연재 시점만을 두고 보면 『野花』 연재 기간에 구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재 이틀 전 광고 『作者의말』을 통해 윤백남은 “시대를 광해(光海) 말에서 이괄(李适) 갑자반란(甲子反亂)에 이르는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힌다. 다른 신문에 연재 중인 『野花』와는 전연 다른 시대, 다른 인물, 다른 사건을 다룰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제아무리 능숙한 역사소설가라 할지라도 사전에 사료의 검토 및 정리와 같은 정지작업 없이는 동시 연재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비록 며칠 상관이기는 하나 『野花』와 『落照의 노래』가 동시 연재를 경험하고 두 작품 모두 연재를 완료했으며, 그와 함께 역사극으로까지 각색되었다는 사실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野花』는 기존의 완성된 서사를 바탕으로 소설과 극으로 각각 장르적 변주를 거쳐 분화되었으며, 『野花』

14) 『八·一五星期해連載 長篇小說 野花』, 『동아일보』, 1952. 7. 30.

15) 오청원, 『尹白南論』(1), 『演劇學報』 20호, 1989.

연재 기간 중 새로 구상되어 연재 개시된 작품이 곧 『落照의 노래』인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신문에 연재된 장편 역사소설의 목록은 앞서 살펴본 대로이다. 그 밖에도 몇몇 중단편의 역사소설들이 연재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대구매일신문』에 195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54회가 연재된 중편 분량의 역사소설 지원(志園)의 『東方의 새벽』이 눈길을 끈다. “가톨릭文단에 鬼名을날리던 志園先生의 歷史小說 『東方의새벽』”<sup>16)</sup>이라는 연재 예고광고에서의 작가 이력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작품은 천주교 수난사를 다룬 일종의 종교소설이다. 우리 신문연재소설사에서 흔치 않은 사례인 셈이다. 지방지에 연재된 사실상 최초의 역사소설이라는 점 역시 이 작품만의 특이한 이력이라 할 수 있다.

단편으로는 『경향신문』에 1946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회 연재된 박태원의 『太平聖代』, 『연합신문』에 1949년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총 9회 연재된 김동리의 『劍君』, 그리고 『서울신문』에 1953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20회 연재된 박용구의 『祭物』이 있다. 박태원의 『太平聖代』는 『경향신문』이 창간기념으로 정예작가 5인의 단편을 잇달아 내놓은 연재작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劍君』은 김동리의 첫 번째 역사소설 창작으로 김부식의 『三國史記』 열전 편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 ‘검군’에 관한 기록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이다. 한편 박용구의 『祭物』은 박태원의 『太平聖代』와 마찬가지로 ‘緋陰短篇리레’ 연작 연재 기획에 따라 4인의 중견작가가 참여한 연재 중 한 작품이었다.

16) 『豫告』, 『대구매일신문』, 1951. 12. 26.

### 3. 변화의 안과 밖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역사는 전대와 단절적 국면보다는 연계적 국면을 더 강하게 보인다. 특히 신문연재 소설 일반의 특징에서 연속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대 식민지 시기 역사소설이 신문연재소설의 사실상 대표주자였듯이 해방 이후에도 역사소설은 그 확고한 위상에 변함이 없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소소하지 않다. 무려 10여 편에 가까운 장편 역사소설이 연재되었다. 연재란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이다. 주요 일간지 연재소설의 가운데 어느 한 지면에는 늘 역사소설이 연재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비록 연재되지는 못하였지만 이태준의 연재 예정작의 경우 박종화의 『民族』과 동일 제목 아래 『중앙신문』 창간 기념작으로 사전 기획됨으로써 신문연재소설에서 역사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대중적으로 포용력이 가장 큰 연재물이 곧 역사소설이라는 데 신문사들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신문에 등장한 이래 연재소설의 총아로 주목받았던 역사소설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

이 시기 신문연재 역사소설이 전대와 갖는 연속성은 일차적으로 작가군에서 확인된다. 박종화, 김동인, 윤백남, 박태원 등 연재에 참여한 주요 작가들은 이미 식민시기 역사소설가로 명망이 높았던 이들이다. 『黃眞伊』와 『王子好童』 등을 통해 역사소설가로서의 면모를 익히 입증해 보인바 있는 이태준에게 연재 의사가 타진되었던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전 시대 주요 작가군이 이 시기에도 대거 역사소설 창작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박태원과 같은 작가의 경우 그 주요한 창작 무대를 역사소설로 옮겨온 감이 있다. 중국 고전 역사물의 번역에 관심을 기울이다 해방 직전 『매일신보』의 『元寇』 연재를 계기로 역사소

설계에 입문한 박태원은 해방 후 신문과 잡지, 단행본 출간 등 다양한 매체와 양식을 통해 번역에서 역사전기물, 그리고 역사소설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창작 및 저술 활동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이광수와 함께 한국 근대 역사소설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김동인의 마지막 창작 역시 이 시기에 발표한 역사소설 『乙支文德』이었다. 중국의 『三國志』에 버금가는 역사소설을 써보겠노라는 야심찬 기획 아래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집필에 임하였으나 결국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한편 극작가, 영화감독, 야담작가이기도 했던 윤백남은 전시대 못지않은 왕성한 창작의욕으로 세 편의 작품을 잇달아 연재함으로써 역사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러한 기성작가 외에 눈에 띄는 작가가 김동리이다. 우익문단을 대표했던 그는 장편 『解放』에서 피력했던 동양적 정신주의의 문맥에서 단편 역사소설 『劍君』을 신문에 연재했다. 1950년대 들어 김동리는 자신이 주창한 제3휴머니즘을 일련의 역사소설 창작을 통해 구체화하거니와, 『劍君』이 바로 그 시발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인지도 높은 기성 작가군에 신진 작가들이 가세하게 된 신문 연재 역사소설계는 그 연재 형식에 있어 전대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그것은 답습에 가까운 형태로 전개되었다. 연재 이전 예고광고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우선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예고광고는 신문사의 연재 기획 의도 및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한 『紹介의말』과 연재 예정 작가의 출사표에 해당하는 『作者의말』로 구성된다. 거기에 이따금 삽화 작가의 변이 덧붙기도 한다. 본격적인 연재에 앞서 2~3회에 걸쳐 게재되었던 예고광고는 일종의 '社告'였으나 상업광고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었다. 신문사들은 하나같이 결코 작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 수차례에 걸쳐 이를 게재했다. 연재소설이 고정란을 배정받은 일종의 '기사 상품'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연재소설

이 신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역사소설 예고광고에는 그만의 특색이 있었다. 독자 유인을 위한 최고의 대중오락물로 손꼽히었던 역사소설의 연재와 관련하여 신문사들은 시대적 요구와 분위기에 편승한 광고 문구를 앞세웠다. 이는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하나의 상품 기사로서 연재소설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데서 나온 전략이었다.<sup>17)</sup> 그 형태는 예컨대 “이조선민족의 해방을축복하고 위대한건국사업에이바지하고자 탄생하는본 중앙신문(中央新聞) 은창간에제하여 해방과독립을 기념하”<sup>18)</sup>기 위하여 또는 “旋風에쫓긴 이겨레에서줄기찬 希望의빛을던지고 말것임을 기대리는 뜻에서 新春劈頭滿天下에보내는 첫 선物로서”<sup>19)</sup>와 같이 대외적인 명분을 담은 문구들을 진설(陳設)하는 방식이었다. 아래 인용되고 있는 신문편집자의 『紹介의말』처럼 소설의 연재를 신문 본연의 사명으로 전제하고 그 의무를 다하려는 취지에서 연재가 결정되었음을 선전한 예도 있다.

신문의본의와 사명이보도의신속과 사회문화의 선구적역할을하는데에 있음은 물론이어나와당대우수한작가의 소설을 연재하는것이 또한개의상례가 되어있어서 독자애작의거반이 거기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잘알고있으면서도 오늘까지 실행해 오지못한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본지는 피난신문의 어려운처지에있지마는 기반도나날이 굳어져갈 뿐아니라 애독제위의 요망도 간절한바 있어 종종의 애로를 극복하고 역사소설단의 거장(巨匠) 윤백남(尹白南)씨에게위촉하여 동씨의 예리한 사안(史眼)에 비친 흥미진진한 『야화』의 거편을 신기로 하였습니다<sup>20)</sup>

17) 움베르토 에코, 조형준 옮김, 『스누피에게도 철학은 있다』, 새물결, 2005, 103쪽.

18) 『新文學創造의標塔 民族 本紙가자랑하는二大連載小説의公同題目』, 『중앙신문』, 1945. 11. 1.

19) 『志園作 新年부터本紙連載 歴史小説 東方의새벽』, 『대구매일신문』, 1951. 12. 26.

20) 『八·一五를期해連載 長篇小説 野花』, 『동아일보』, 1952. 7. 30.

그러나 신문사의 소설 연재는 어디까지나 독자 유치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연재작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작자는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도 없이 우리문단의 거성(巨星)”<sup>21)</sup>, “역사적대중소설계의 제1인자인 백남윤교중(白南尹敎重)씨”<sup>22)</sup>, “작자홍목춘씨는 일찍부터 많은 역사소설을 집필하여, 천하에 문명을 떨치던 우리나라 역사소설계의 노장(老匠)”<sup>23)</sup> 등과 같은 문구를 이용한 작가 소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서 나아가 “李朝의 猛將이요, 革命家요, 不遇의 浪漫客이었던 이巨人에 이執筆者를 얻은 것은 참으로 讀者諸賢의 多幸”<sup>24)</sup>과 같은 문구를 내걸어 작품 내용에 걸맞는 최적의 작가 설의 사실을 자랑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사소설의 작가로서는 그 역사적 고증의 확실함과 내용의 치밀함과 문장의 유려함이 더할나위 없는 것이니 독자여러분의 기대에 틀림없을 것을 의심치 아니합니다.”<sup>25)</sup> 같이 작가의 역량을 앞질러 칭송한 경우도 있다. 독자 유인이라는 중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고광고는 급기야 그 의도를 표면화하기에 이른다. 읽는 맛을 돋우는 요소, 곧 ‘재미’의 추구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아래 인용된 『作者의말』에서 보듯이 작가가 직접 나서 이 대열에 동참한 사례도 있다.

끝으로 작자의 자신을 한층 굳게해주는 것은 청전(靑田) 이상범(李尙範) 화백의 삽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역사소설의 삽화는 유래 풍속과 전고(典故)에 능란치 않으면 실패하는 것으로 역사소설의 흥미의 태반이 그것에 달린 것입니다. 청전화백은 이 점에 있어 이미 거장(巨匠)의 칭여를 받는 대가이며 작자의 오랜 동지의 한 사람이며 붓대를 등에 즈음하여 든 다 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sup>26)</sup>

21) 「新春부터 本紙連載 長篇小說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8. 12. 25.

22) 「四月十日附부터 新連載小說 回天記」, 『자유신문』, 1949. 4. 2.

23) 「歷史小說 醉香亭」, 『국도신문』, 1949. 9. 8.

24) 「長篇小說 洪景來 連載」, 『동아일보』, 1948. 9. 23.

25) 「다음의 連載小說 12일부터 歷史小說 落照의 노래」, 『조선일보』, 1953. 2. 10.

주지하다시피 신문연재소설의 ‘삽화’란 해당 연재분의 읽는 재미를 보충하기 위한 방편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특히 전연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역사소설의 경우 이 삽화가 전달하는 시각적 정보와 흥미는 여타 소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작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위의 광고에서처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뛰어난 삽화가의 참여로 인해 작품을 읽는 재미가 한층 배가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정한 역사의 재현으로서가 아닌 흥미로운 대중독물로 탄생한, 그리고 오락물이길 요구 받은 신문연재 역사소설에 씌워진 굴레였다.

연재 형식에 있어 역사소설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타이틀과 표제에서 발견된다. 이는 해당 작품을 어떠한 글쓰기로 규정하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전대 역사소설 연재 전통의 한 요소였다는 점에서 그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대체로 이 시기 신문사들은 예고 광고에 다양한 타이틀을 내걸었다. 박종화의 『民族』과 『洪景來』, 박태원의 『壬辰倭亂』, 윤백남의 『野花』에는 ‘長篇小說’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윤백남의 『回天記』에는 ‘新連載小說’, 박태원의 『群像』에는 ‘長篇歷史小說’, 윤백남의 『落照의 노래』와 지원의 『東方의 새벽』, 그리고 홍목춘의 『醉香亭』에는 ‘歷史小說’이라는 타이틀이 각각 부기되었다. 다소 예외적으로 윤백남의 『颱風』은 일차 광고에서는 ‘長篇小說’이 연재 하루 전 이차 광고에서는 ‘歷史小說’이 타이틀로 쓰였다. 한편 김동인의 『乙支文德』의 경우 신문에 연재되기 이전 잡지에 먼저 그 일부가 발표되었는데, 이때 『糞土의 主人』에는 ‘歷史小說’이, 『糞土』에는 ‘長篇歷史小說’이라는 타이틀이 목차의 제목 앞에 내걸렸다. ‘歷史小說’이라는 타이틀이 예고광고의 제목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紹介의말』 혹은 『作者의말』에서의 언급을 통해 신문사와 작가는

26) 『八·一五를期해連載 長篇小說 野花』, 『동아일보』, 1952. 7. 30.



해당 작품을 역사소설 텍스트로 성격 규정하였다.

한편 매 연재분의 제목 앞에 붙는 표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로 ‘長篇小說’이라는 표제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박종화의 『民族』과 『洪景來』, 박태원의 『壬辰倭亂』, 윤백남의 『回天記』, 박태원의 『群像』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로 특별한 표제가 붙지 않은 경우다. 윤백남의 『颱風』과 『野花』가 그러하다. 지원의 『東方의새벽』에는 예외적으로 ‘連載小說’이라는 표제가 붙었다. ‘歷史小說’을 표제로 사용한 예도 있다. 홍목춘의 『醉香亭』과 윤백남의 『落照의 노래』가 이에 해당되는데, 두 작품 모두 ‘歷史小說’이 타이틀과 표제로 동시 사용되었다. 이렇듯 이 시기 신문연재 역사소설은 한편으로 연재 양식의 규정적 틀을 전유함으로써 전대문화과의 연계성을 구축해갔다.

담화적 층위에서도 계보적 특질이 확인된다. 일차적으로 사료적 엄격성을 추구하는 서술태도가 눈에 띈다. “그는 활쏘고 말달리는 충충한 전장속에서 서정기(西征記)란 일기를 써서 오늘날 홍경래에 대한 좋은 사료(史料)를 주게하였다.”<sup>27)</sup>와 같은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한 경우도 있으나, “내 소설은 이증비록에서의 인용으로부터 시작된다.”<sup>28)</sup>거나 “이것을 우리는 이순신자신이 쓴 일기에서살펴보기로하자.”<sup>29)</sup>는 식으로 사료의 출처를 직접 밝힌 경우도 있다. 사료는 대개 해당 글쓰기가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활용된다. 그리고 이에는 작가의 역사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또한 숨어 있다. 재미와 역사 지식의 습득을 위해 독자들이 역사소설을 읽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 신문저널리즘에 의해 간파된 전략이거니와, 바

27) 박종화, 『洪景來』, 『동아일보』, 1949. 7. 2.

28) 박태원,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9. 1. 1.

29) 박태원,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9. 2. 28.

로 후자가 이러한 서술태도와 관련된다.

한편 이야기의 맛을 돋우기 위해 작가들은 다양한 자료를 서사 전개 과정에 끌어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기회에 여기서 그때 정객심리(政客心理)를 엿볼수있는 한가지실례를 소개하려한다”<sup>30)</sup>거나 “이 시대의 세상형편은 과연 어떠하였나—, 나라 정사는 어떠하였고, 백성들의 사는 꼴은 어떠하였나. 그것을 알기위하여 이곳에서 안동 김씨 세도사(安東金氏勢道史)의 몇 페이지를 들추어보는것도 아무 무용한 일은 아닐줄로 믿는다”<sup>31)</sup>, 그리고 “풍신수길이가 그렇듯 전쟁준비에 전 국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같은 신묘년(辛卯年)에 우리 조정에서는 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었던것인가—, 그당시의 기록을 잠깐 살펴 보기로 한다.”<sup>32)</sup>와 같은 서술에서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차 사료를 활용한 이러한 부가적 설명은 표면상 역사 지식을 보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겉가지 서사의 배치를 통해 흥미를 배가시키려는 전형적인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서사전략이 개입된 국면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심지어 사료가 아닌 다른 작가의 텍스트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박태원은 『群像』의 연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접 문면에 나서 밝힌다.

김동인(金東仁) 씨의 『운현궁의 봄』에는 이시절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거니와 나는 나의소설을 진행시키는 한 방편으로, 그중의 한 대문을 그대로 이곳에 옮겨보기로 한다.

…당시의 정계(政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여기 몇 개의 에피소드로서 그상황을 말하여 보겠다.<sup>33)</sup>

30) 홍목춘, 『醉香亭』, 『국도신문』, 1949. 9. 16.

31) 박태원, 『群像』, 『조선일보』, 1949. 9. 21.

32) 박태원,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9. 1. 18.

33) 박태원, 『群像』, 『조선일보』, 1949. 8. 22.

실제로 작가가 그 출처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텍스트를 전범 삼는 혼성모방의 글쓰기는 근대 역사소설계에선 크게 흉잡힐 만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특정 인물에 얹힌 일화를 여러 텍스트가 차용한 사례는 매우 잦았다. 이렇듯 참조된 사료나 여타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대목에서 작가는 서술자의 페르소나를 일시 벗고 독자를 문면에 호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꾀하게 된다. 작가와 독자가 서사의 표면에서 대면하게 되는 또 다른 담화적 상황은 “그런데 말을 달려오며 소리를 내지른 인물은 과연 무엇이던가?”<sup>34)</sup>라든지 “여기서 이야기는먼저옥매의정체가어떠한 출신이며이와기맥을 통하고여러사람의 눈을기우고 드나드는그수상한인물들이 과연무엇들인가로 드러갈 필요가있다”<sup>35)</sup>와 같은 서술에서처럼 작가가 나서서 독자의 주의집중을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순간이다. 야담가로서 일반 청중을 상대로 역사에 대한 강화(講話)를 펼쳤던 몇몇 작가들의 이력과 이는 무관치 않은 서술 양태이다. 그들에겐 한때나마 대중연설의 형식을 빈 강담(講談)으로 대중에게 근대적인 역사물의 소비를 조장했던 전력이 있다. 야담가로서의 이력을 차치하고 서라도 대다수의 작가들은 역사소설을 역사 강화의 대중적 판본으로 쓰고자 했다. 그 결과 역사 지식의 구어적 강화 형식으로서, 이른바 구연(口演) 담화가 자연스레 역사소설 글쓰기에 수용되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역사소설가의 강사적 면모는 역사적 사건의 진위를 논하는 서술 가운데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필자는야사보다정사를 밋고 이문제의 해석과 판단은 현명한 독자에게맡겨버린다”<sup>36)</sup>거나 “이것으로 미루어볼

34) 윤백남, 『落照의노래』, 『조선일보』, 1953. 4. 17.

35) 윤백남, 『回天記』, 『자유신문』, 1949. 4. 15.

36) 박종화, 『민족』, 『중앙신문』, 1945. 11. 28.

때 우리는 당시의 흥년이 해마다있었던거를 알수있고 이기막힌 흥년속에 한고을의 힘을 다기우려서 그아버지의 환갑잔치 지난것이 얼마나 굉장했던것이며 흥경래 이외에 좀도적이 사면에 일어났던것을 소소하게 알수있는것이다.”<sup>37)</sup>와 같은 서술 양상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이에서 나아가 때때로 인물 혹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일대의 효웅 대원군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정적인 민씨 일문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그가 우리 조선의 문호개방을 극도로 배척하고 서교를 탄압하여 세계대세에 역행하려는 헛된 노력으로 중시한것으로 보아서 그는 우리 조선으로 하여금 남의 나라에 비하여 반세기쯤이나 뒤지게 만든 죄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sup>38)</sup>

이렇듯 역사소설가가 역사를 강의하듯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역사가로의 변신을 욕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가깝게는 소설이 곧 역사연하는 사태일 것이요, 멀게는 민족주의와 같은 축매에 반응함으로써 피할 수 없게 되는 역사의 심미화일 것이다.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이 거리는 실상 그리 멀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양자가 혼호(混淆)됨으로써 발생하는 미적 효과이며, 그것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유됨으로써 불온해지는 사태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역사로 읽을 것인지, 소설로 읽을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독자라면, 이미 그에게 역사와 소설 사이의 경계는 무용한 터일 것이다.

건국 육칠백년, 단일 민족으로 순조롭고 건실하게 자라기 오늘날에 이른 고구려국의 지위는, 진실로 못 닮 가운데 한 학(鶴)이었다.

한편으로 생겨서 한편으로 사라지는 무수한 국가들이, 내가 천자다 아니 네가

37) 박종화, 『洪景來』, 『동아일보』, 1949. 4. 3.

38) 윤백남, 『颶風』, 『동아일보』, 1950. 3. 25.

천자다, 이진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야단들 할 때에, 동방에 묵연히 웅립하여 단군의 후손이요 고주몽의 나라이라는 단 한 가지의 구호를 자랑삼아, 작은 나라들의 아우성을 묵연히 굽어보며, 한 번 휘두르면 천하를 뒤엎을 실력을 가지고, 오직 내 옛 터 밖에는 눈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시무시하고도 점잖은 나라 고구려<sup>39)</sup>

#### 4. 전통의 욕망

역사소설의 정의 문제는 이 시기에 들어서도 논란거리였다. 전대의 난제가 고스란히 이월된 것이다. 이는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나아가 역사소설 창작의 이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문제와도 맞물린 것이었다. 앞선 시대 다수의 작가와 비평가들은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그 결과는 요령부득이었다. 거듭된 공전은 결국 이 문제를 미궁에 빠뜨리고 말았다. 유일한 성과는 사실(史實)과 허구의 화해 불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정도였다. 실제로 대다수의 논자는 사실과 허구의 대립구도 사이에 위계를 설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역사소설의 당위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해방기에 접어들면서 역사소설의 방점이 ‘역사’와 ‘소설’ 가운데 어디에 두어져야 하며, 그 연속선상에서 양자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변주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 ‘역사’의 우위에 선 대표적 논자의 한 사람이 윤백남이다. 그는 『回天記』 연재에 부쳐 다음과 같은 「作者의말」을 내놓는다.

모든 역사적사실을 지금의 사람으로서파져볼때에 그어디까지가 정곡한 사실이며 어느점이 허위의사실인가는 쉽게판단하기 어려운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

39) 김동인, 『東仁全集 第六卷』, 正陽社, 1951, 385쪽.

사적 어떠한 사실과 그의 중심되는 인물의 행장을 살펴볼 때에는 그 당시의 시대성(時代性)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단적 사실에 의하여 나타나진 중심 인물의 성격을 판단하여 그의 모든 행동의 심각요소를 줄쳐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자유스러운 표현방법이 곧 소설의 형식일 것이며 전기(傳記)가 갖지 못하는 입체적 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sup>40)</sup>

위 인용문에 따르면, 윤백남에게 있어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글쓰기이다. 그러나 사실과 허위의 판별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글쓰기 전략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윤백남은 입체적 서술이 가능한 소설적 글쓰기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정확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소설적 의장을 역사 글쓰기에 제한한 것이다. 윤백남이 제시한 이 같은 역사소설 창작 방법론이자, 역사소설에 관한 간접적인 정의는 『回天記』의 후속작인 『颶風』 연재 예고광고에서 재차 피력된다. 윤백남은 자신의 『颶風』 창작이 “사실(史實)에 의지하여” 한말의 “우국인사들과 관장(官場)의 부패 그리고 모진 바람결에 헤매던 사회상을 그리어 보려는 의욕”에서 발로 된 것임을 밝힌다. 이어 그는 “소설이니만치 역사의 조술도 아니며 누구 하나의 전기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소설인 동시에 사실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지를 또한 내비친다. 윤백남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곧 ‘역사’와 ‘소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분열적 사고를 보여준다. ‘역사’와 ‘소설’, 그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기에 둘의 불편한 동거를 감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개의 외사(外史)적 역할을 하고자하는 분에 넘치는 의욕”<sup>41)</sup>을 고백함으로써 중국엔 ‘역사’의 손을 들어주고야 만다.

한편 이 시기 역사소설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김동리는 소설적 측면을

40) 『四月十日附부터 新連載小説 回天記』, 『자유신문』, 1949. 4. 2.

41) 『다음의連載小説 颶風』, 『동아일보』, 1950. 1. 21.

보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김동리는 “積極的意慾”과 “史實에의懇曲”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박종화의 『民族』이 소설로서 거둔 성과를 논한다. “『積極的意慾』으로써 讀者에게 民族的意識 乃至『民族不滅』의精神을 鼓吹하게 된것과 『史實에의懇曲』으로써 生命있는歷史的知識을 普及시킬수있는것은 그옴은바”이고, “前者로하여 表現에의 抽象性을 齎來하게한것과 後者로하여 文學的構成力을 弱化시킨것은 모다 그옴은바”라는 것이 김동리의 평가였다. 이러한 손익과는 별개로 그는 “이작品이 小說보다 歷史에 置重되었다는것은 疑心할餘地가 없는바”라 단언한다. 그리고 “歷史가아니고小說인 以上『史實에의偏重』이 小說로서의形象의 焦點을 흐리게한點에對하여 筆者는 異議를 품는 바이다”<sup>42)</sup>라고 말함으로써 ‘역사’보다는 ‘소설’에 무게중심을 두는 자신의 역사소설관을 우회적으로 개진한다.

‘사실’과 ‘허구’의 비중 문제에서 ‘역사’와 ‘소설’이라는 작가의 서술태도로 논의의 양상이 변주되는 것과 함께 이 시기 역사소설 논의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역사소설을 민족사의 대체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도처에서 적극적으로 표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방이 가져온 시대적 과제로서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문학적 실천의 대의적 명분이기도 했다. 신문저널리즘은 앞다투어 역사소설 연재를 기획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중앙신문』이 “이조선민족의 해방을축복하고 위대한건국사업에이바지하고자 탄생하”<sup>43)</sup>게 되었다는 창간 취지와 함께 그 기념작으로 박종화와 이태준의 역사소설 『民族』의 연재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일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작가 역시 “四十年

42) 김동리, 『月灘과 그의 『民族』(下)』, 『경향신문』, 1947. 11. 30.

43) 『新文學創造의標塔 民族 本紙가 자랑하는二大連載小說의公同題目』, 『중앙신문』, 1945. 11. 1.

동안 잃어버린 조국(祖國)을 찾기 위하여 꾸준이 불의(不義)와 싸워온 우리민족의 끝없는 피투노는脈搏을 그리어볼가한다”<sup>44)</sup>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써 이에 부응하고자 했다. 식민시기 역사소설과 민족서사를 등치시키고자 했던 내밀한 욕망이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안희남은 해방되던 해 『歷史小說에對하야』라는 짧은 평론을 통해 “아푸로 꽤 여러作家들이 歷史小說에붓을들 徵兆를 보이고있다”고 전망한다. “現實의으로 大綴히感動的인느낌과 衝動을 받고잇”는 해방 직후의 “歷史的 社會的모멘트에서” 역사소설의 번성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모다過去로 달어나는” 요인이 “作家의 現實逃避라든가 또는 作家의 精神的態度的 現社會의 霧圍氣와의 不調和에서오는 分裂” 탓이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보인다. 오히려 그의 관점에서 역사소설 창작은 “民族的으로 過去의歷史속에서 얼마든지 民族 의矜持라든지 進歩的인飛躍의圖謀라든지 勇斷과果敢의 發見과 그것의再生을 꾀할수잇”는 글쓰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實의 歷史에의 完全한 把握과適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안희남은 만약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誤樂的記述로되어 우리가 오늘날 拒否하고 揚棄해야할 모든 反動的要素로써 우리아페 애와 물구나무를 서”<sup>45)</sup>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안희남의 이러한 주장은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결집한 좌익문인들이 역사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변한 것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익문단의 대표적 역사소설가였던 박종화는 “所謂『黨을爲한文學』과의 妥協은 거의 不可能하였다 다같이 民族文學을 내걸었음에도 가는길은 아주달랐다”고 말함으로써

44) 박종화, 「長篇小說『民族』」, 『중앙신문』, 1945. 11. 4.

45) 안희남, 「歷史小說에對하야」, 『중앙신문』, 1945. 12. 5.



좌익문인들에 대해 선을 긋는다. 그리고 “危機에서彷徨하는 民族精神의 意義把握과 涵養은 決코파시즘이나 八紘一宇에通하는 國粹主義는 아니라”는 전제 아래 “封建性を 脱殻한 文學史的 意義와 文學的으로는 近代 文學精神의 높은 藝術的香氣를 가추”<sup>46)</sup>는 데서 역사소설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그렇다면 해방한국기의 역사소설 텍스트들이 실제로 구현한 민족서사로서의 면모는 어떠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방되던 해 연재가 개시된 박종화의 『民族』을 우선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 “四十年 동안 일어버린 조국(祖國)을찾기위하여 꾸준이불의(不義)와 싸워온 우리민족의 끝없는피투노는脈搏을그리어볼가한다”<sup>47)</sup>라는 말로 스스로 창작 의지를 다진 박종화는 그 『序說』에서 자신이 구성해낸 민족주의를 아래와 같이 피력한다.

민족은 위정자(爲政者)를감시(監視)해야한다 민족은 뭉쳐야한다 절대로 배타주의(排他主義)가 아니다 살기위하여 자립(自立)을피하여 한맘 한뜻으로 뭉쳐야한다 조선민족은 하나요 둘이 아니다

...(중략)...

민족을 떠나서 내가없고 나를떠나서 민족이없다

민족은 고향의 모체(母體)요 나는 고향민족의 한분자인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량을 가져야한다 조선민족은 내 민족이요 남의 민족이 아니다<sup>48)</sup>

이러한 민족관 아래 민족의 항전과 투쟁의 역사를 작품화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화는 『民族』에서 구한말의 정치사를 개괄하는 데 그치고 만다. 민족의 구체적인 투쟁 양상을 소설

46) 박종화, 『新朝鮮建設의構想-文化』, 『동아일보』, 1948. 1. 1.

47) 박종화, 『長篇小說『民族』』, 『중앙신문』, 1945. 11. 4.

48) 박종화, 『長篇小說『民族』』, 『중앙신문』, 1945. 11. 6.

로 그려내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sup>49)</sup> 해방 직후 유행처럼 번진 ‘민족’이라는 관념적 어휘에 사로잡힌 나머지 작가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민족 감정만이 작품 전면에 표출되었을 따름이다. 기성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데 그친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혹평<sup>50)</sup>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소설적 의장 면에서 『民族』은 지극히 빈한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民族』의 연재를 마친 이태 뒤 박종화는 『洪景來』 연재를 통해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당대적 과제의 선결을 위한 민족수난사의 서사화 작업을 재차 시도한다. “洪景來란人物은 내가 언제든 한번 創作化하여 보려든 對象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그는 民生이 塗炭에 허덕이든 李朝末期에 있어 가장 民意를 잘把握했던 革命的人物인때문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전략은 영웅의 재발견에 있었다. 역사적 인물을 민족적 영웅으로 호출하여 이를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재현해내고자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박종화는 “一百三十七年前의 時代相을 오늘날 이現實과 對照하고”<sup>51)</sup>자 했다. 오랜 기간 민족서사로 환치되기를 꿈꿔온 역사소설가로서의 욕망이 전면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러나 부수적인 인물들이 엮어내는 통속적 연애담이 서사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작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는 뒷전으로 나앉고 말았다. 신문독자의 흥미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한사람의 빼어난 人物의活躍은 背後에 반드시 數千萬이 肯定할수있는 『民心』을 土臺로하여 서지 않으면 아니된다”던 작가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왜곡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거니와, 흥경래를 비롯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작가의 시

49) 민현기, 「해방직후 역사소설 연구」, 『語文學』 제70집, 153쪽.

50) 민현기, 앞의 글, 154쪽.

51) 「長篇小說 洪景來 連載作者의말」, 『동아일보』, 1948. 9. 23.

선이 작품 전반에 걸쳐 시종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흡사 박종화의 『民族』과 『洪景來』의 재판이라 할 창작상의 우를 김동인의 『乙支文德』에서도 목격하게 된다. 김동인은 『乙支文德』의 첫 장 「시초」에서 이 작품 창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시조 고주몽(高朱蒙)이 북부여(北夫餘) 땅에서 일으킨 조그만 나라 고구려를, 뒤이은 명군 명장들이 늘이고 늘여서, 서북방의 웅국(雄國) 한족의 나라와 우연히 대립하여 동방인의 자랑을 천하에 자랑하는, 대 고구려국을 튼튼히 지켜서, 수양제(隋煬帝)의 이백만 대군을 살수에 함몰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수나라까지 둘러엮은 동방의 수호신 을지문덕—

그의 부보가 세상에 전하매, 그의 일생의 적이던 당나라 고조와 태종이 목을 놓아 울어서 위대한 영웅의 서거를 조상하였다 한다.

불행히 그의 일대는 사가(史家)의 농친바 되어 이제 살수(薩水)의 전기(戰記) 하나 밖에는 전하는 것이 없다.

작자는 토막 모음으로 전하는 그의 일대를 소설화하여 이 아래 전하여 보려 한다.<sup>52)</sup>

‘동방의 수호신’으로 을지문덕을 찬양하며 역사가들이 감히 행하지 못한 그의 일대기를 소설로서 기록해보겠노라는 야망을 이렇듯 김동인은 숨기지 않는다. ‘홍경래’와 ‘전봉준’을 통해 민족의 수난 극복을 서사화하려던 박종화의 창작 지향과 이는 결코 다르지 않다. 실제로 만만치 않은 역사 공부의 시간을 쌓아온 이가 김동인이다. 그것은 소설적 모티프를 찾기 위한 작가로서의 현실적인 이해를 이미 넘어설 정도였다. 『乙支文德』 창작에 즈음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朝鮮史溫古』(相互出版社, 1947)만으로도 역사 탐구에 대한 김동인의 열정과 내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김동인의 『乙支文德』 창작은 박종화의 시행착오로부터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식민시기 그가

52) 김동인, 『東仁全集 第六卷』, 正陽社, 1951, 373쪽.

보여준 역사소설가로서의 역량을 의심케 할 정도로 그 실패는 참혹한 것이었다. 애초에 대작으로 기획된 작품이기에 미완으로 남은 텍스트를 가지고 속단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러나 미완의 텍스트는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가늠하기에 결코 적지 않은 중편 이상의 분량이다. 『乙支文德』은 「시초」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반부 세 개의 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은 온전히 '陳姬 菊香'에 관한 이야기이다. 진나라 공주 국향이 나라의 멸망과 함께 고구려로 피신하여 을지문덕의 아내가 되고, 진나라 장량이라는 사내가 국향을 찾아와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갈등이 그 주요한 내용인 것이다. 이 일련의 서사전개에서 을지문덕의 상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을지문덕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국향의 애정사라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향후 펼쳐질 을지문덕의 영웅적 행적이 마지막 장에서 암시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서사는 이를 감당하기 역부족일 만큼 곁가지로 샌지 오래다. 앞서 박종화의 『洪景來』에서 확인한 바 있는 통속적 야사로의 전략을 예감케 할 뿐이다.

한편 “우리 민족 최대의 수난(受難) 굴욕(屈辱)의 기록(記錄)”<sup>53)</sup>을 담아내겠다는 말로 『壬辰倭亂』 창작의 일성을 밝힌 박태원은 임진전쟁에서 펼친 이순신의 활약상을 작품의 서사적 골간으로 삼고 있다. 일찍이 『李忠武公全書』의 일부를 번역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서사 구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序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작자의 직접적인 논평을 보도록 하자.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를 뒤적어려 보느라하면 다음과같은 기록이 눈에 띈다.

53) 『新春부터本紙連載 長篇小説 壬辰倭亂-작자의말』, 『서울신문』, 1948. 12. 25.

『이순신이 처음에 수사(水使)를 제수받았을 때 그의 친구 한사람이 꿈을 꾸니, 큰 나무가 높기는 하늘을 찌를듯하고 가지는 사면으로 뻗었는데 그 위에 올라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몇천만명인지를 모르겠다. 그리자 그나무가 뿌리채 뽑히어 쓰러지려 하더니 한 사람이 몸으로써 이를 뿌뿔어세운다. 보니 바로 순신이었던라 한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믿어도 좋고 안믿어도 또한 상관이 없다. 그것은 듣는이 각자의 자유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결코 부인할수 없는 것은, 우리가 겪은 최대의 국란인 임진왜란을 당하여 국가를 멸망의 구렁이에서 구하여내고 동포를 도탄 속에서 건져낸 것이 아무 다른 사람이 아니요 실로 전사좌수사이순신이었다는 엄숙한 사실이다.<sup>54)</sup>

위의 인용문이 예고하듯 『壬辰倭亂』은 영웅담의 형식을 빌어 쓴 민족 수난사의 문학적 복제본이다. 그 중심에는 ‘이순신’이란 영웅이 자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바로 그를 향한 숭모의 염을 담은 박태원의 헌사이다. 전체 여덟 개의 장에서 ‘이순신’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도 쉽게 확인되는바, 『序章』 제삼절의 ‘李舜臣小傳’이라는 제목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웅담은 근대적인 역사소설이 전대 문학에서 물려받은 유산의 하나다. 이 같은 영웅담의 기원은 이른바 전기(傳記)의 일 양상이라 할 ‘전(傳)’ 양식에 가 닿아 있으며, 한국의 근대 역사소설은 이 전통에 빚진 바 적지 않다. ‘李舜臣小傳’은 바로 그 내력을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 ‘동학당 사건을 배경으로 전봉준의 활동을 주제’ 삼은 윤백남의 『回天記』, ‘검군’이라는 고결한 인물의 정신주의를 통해 우익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자 했던 김동리의 『劍君』, ‘한말 반세기 개국유신에 발분 노력하여 만대 불멸의 국초를 다시 놓고자 피를 흘린 위인들의 행적’을 그린 윤백남의 『颶風』과 ‘수양(首陽)이 일으킨 쿠데타의 이면을 배경

54) 박태원,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9. 2. 1.

으로 우리의 국토개척의 영걸 김종서(金宗瑞)의 인간성을 그린 『野花』 등이 그러했던 터, 해방한전기 신문연재 역사소설 텍스트들은 민족수난사 극복의 영웅서사로 그렇듯 선전되고 또한 소비되었다. 태생적 통속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민족사의 대중적 판본으로 거듭나길 욕망했던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전대와의 연속성 속에서 분기되는 지점으로,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의 계보에서 해방한전기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위치를 말해주는 좌표이다.

## 5. 남은 과제

해방한전기 신문연재 역사소설은 한편으로 전대의 문학적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생산 및 유통의 측면에서 전대 작가들이 다수 연재에 참여한 점, 배후 주체로서 신문저널리즘의 요구 및 기대가 달라지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비의 측면에서도 일찍이 역사 지식에 재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형성해낸 전대 독자층을 지속적으로 견인해갔다. 한편 소설미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예고광고에서부터 연재 형식에 이르기까지 신문소설로서의 관행을 그대로 고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사(野史)에서 정사(正史)에 이르기까지 역사물 전반을 가로지르는 혼종적 글쓰기로서의 모양새 또한 여전했다.

새로운 양상이라 한다면 대중적인 민족사 텍스트로서 역사소설이 전면에 부상한 점일 것이다.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된 이 변화는 역사소설이 전대와 분명 다른 문맥을 지닐 수밖에 없는 외적 요인의 결과였다. 그러나 좌우문단의 상이한 기망

(冀望)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시기 민족서사로 기표화된 역사소설의 기의는 실상 불분명했다. 민족국가 건설의 당위적 명분을 과거의 민족사에서 찾고자 한 욕망이 역사소설 창작과 탐독으로 일부 전이되었다고는 하나, 그 결과는 예견된 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민족’이 무수한 기표들에 의해 연출되는 착시효과의 기의이듯 역사소설 또한 ‘현실과의 대결을 회피하는 작가의 부산물’<sup>55)</sup>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역사소설은 여전히 저널리즘의 충애를 한 몸에 받는 최고의 복고 상품이 있을 따름이다.

이렇듯 해방한전기는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사에 있어 중대한 변곡점의 하나였다.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기를 한 데 묶든 아니면 별개로 구분하든 거기에는 분명 이 시기를 대변하는 역사소설 문학이 실체로 존재한다. 그 전개 양상을 입체적으로 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해방한전기라는 편의적인 시기 설정을, 그리고 해당 시기 전후의 변화와 계승의 국면들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문연재소설이라는 매체상의 공약수를 설정했다. 연구 대상 선정을 곧 이 시기 역사소설 연구를 위한 방법이자 전략으로 제안한 셈이다. 그러나 고백컨대 이러한 연구 대상 선정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기 설정의 임의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과연 해방에서 한국전쟁기까지를 한 데 묶어 접근할 만한 내재적 연속성이 존재하는가? 한국전쟁기와 전후문학을 명확히 구분할 만한 문학 내적 근거는 무엇인가? 해방한전기를 하나로 분절할 경우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식민시기와 한국전쟁기 사이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등등이 그 속내다. 아울러 신문연재 역사소설만으로 해방한전기 역사소설 문학계의 지배적인 흐름을 탐색해낼 수 있는가? 이 시기에 현저히 증가한 잡지 연재 역사소

55) 이봉래, 『回顧와清算-不毛의荒蕪地』, 『경향신문』, 1953. 11. 7.

설 텍스트를 제외한 논의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개별 작가들의 창작 경향을 시기적 특수성을 매개로 한 데 수렴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문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글에서 확인한 난제들이 본 연구의 성과이며, 따라서 추후 연구의 시발점이자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 신문: 경향신문, 대구매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신문, 자유신문, 중앙신문, 태양신문, 국도신문
- \* 잡지: 야담, 조광, 신천지, 신문학
- \* 작품집: 『東仁全集 第六卷』(正陽社, 1951), 『金東仁全集』(조선일보사, 1987)

### 2. 논문

- 곽근, 「동학농민운동 제재 역사소설 연구」, 『沖橋語文學』 28집, 2010, 439-463쪽.
- 김광명, 「나의 아버지 김동인을 말한다」, 『대산문화』 35호, 2010.
- 김병길, 「해방기, 근대 초극; 정신주의 - 김동리의 「劍君」을 찾아 읽다」, 『한국근대문학연구』 5집, 2004, 328-362쪽.
- 김종희, 「해방 전후 박태원의 역사소설」, 『구보학보』 2집, 2007, 9-31쪽.
- 민현기, 「해방직후 역사소설 연구」, 『語文學』 70집, 2000, 149-178쪽.
- 박배식, 「해방기 박태원의 역사소설」, 『동북아문화연구』, 17집, 2008.
- 오청원, 「尹白南論」(1), 『演劇學報』 20호, 1989, 117-134쪽.
- 이주형, 「한국 역사소설의 성취와 한계」, 『현대 한국문학 100년』, 민음사, 1999, 153-193쪽.
- 정현숙, 「解放空間과 歷史小說 朴泰遠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111-128쪽.
- 정호웅, 「박태원의 역사소설을 다시 읽는다 - 인물 창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집, 2007, 55-80쪽.
- 한명환 · 김일영 · 남금희 · 안미영, 「해방 이후 대구 · 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 조사 연구 - 격동기(1946-1962) 대구경북지역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1집, 2004, 345-370쪽.
- 한명환, 「한국전쟁기 신문소설의 발굴과 문학사적 의의-전신 대구경북지역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2003, 127-150쪽.

### 3. 단행본

- 김동인, 『朝鮮史溫古』, 相互出版社, 1947.
-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새미, 1997.
- 움베르토 에코, 조형준 옮김, 『스누피에게도 철학은 있다』, 새물결, 2005.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the Serial Historical Novels in Newspaper from the 1945 Liberation to Korean War

Kim, Byoung-Gill(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unfolding phase of the serial historical novels in newspapers from the 1945 Liberation to Korean War. In the historical novels during this time advanced age's legacy and new phases derived from the age's political situation coexists. This paper's primary purpose is to prove such it's specific aspects. For this the facts and series' reality of released works will be researched bibliographically. I judge that the continuity between this time historical novels and advanced age's those can be verified on such a basis of the analysis about form traits and discourse characteristics as a serial novel. In addition to this the core issues are the assumption by the theoretical discussions concerning historical novel, changed new themes, and writers' historical consciousness in order to track the variation of historical novel's tradition.

(Key words : 1945 Liberation of Korea, Korean War, nationalism, serial novel, historical novel)

투고일 : 2012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2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2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